

DJ 권유로 입문…12년만에 대권 도전

■ 정동영 후보는 누구?

기자출신 대중 친화형 ‘스타 정치인’

개성공단의 주역 ‘평화대통령’ 비전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정동영 후보는 기자 출신의 ‘대중친화형’ 정치인이다. 모진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봉을 끌어온 ‘초인형·투사형’ 리더십과는 달리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를 과단성 있게 현실정치에 투영해내는 여론중시형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 프로필
생년월일 1953.7.27
출생지 전북 순창
키.몸무게 180cm, 88kg
학력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영국 웨일스대
재단법인 석사
병역 육군 병장 한기대
경력 대선 후보
기자회견 부인 한혜경, 강남
주요 경력 MBC 보도국 기자(1980~1986), 15대·16대
국회의원(1996~2004), 열린우리당 의장(2004),
동일부정과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
위원회장(2004~2005), 열린우리당 의장(2006)
재산고액 9억4000만원
종교 천주교
제자 계나리 이재석,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증산동 나리를 만들겠습니다
최우영 구동연이아(同人集)
트레이드 맥고 등급기행, 개성동행
증강하는 인물 백범 김구, 다산 정약용
기장 좋아하는 북 평화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
예향곡 ‘평화는 아침에’
한달 생활비 150만원
취미.특기 축구, 등산
성격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열정적으로 몰두
하고 고집
주장 혼연 소주·생강, 금연
기장 소중한 것 아내, 아들, 딸지자
©연합뉴스그라픽

1996년 MBC 기자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최연소 최고 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승승장구했고 정치입문 12년 만에 범여권 최대정파의 대선후보가 되는 영예까지 안았다.

‘개성(開城) 동양’이란 신조어는 정동영 리더십의 또 다른 정수를 상징

한다. 수년째 설계도에만 머물던 개

성공단을 직접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낸 추진력을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낸 ‘평화대통령’으로서의 비전

과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유전일 출생·눈물 젖은 밥** =

‘귀공자’와 같은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정 후보는 시련과 굴곡으로 점

철된 유년시절을 보였다. 6·25 전쟁

후전쟁정일인 1953년 7월27일 전복

순창군 구립면에서 태어난 그는 전쟁 통에 네명의 형이 병사하면서 장남으로 성장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한 정 후보는 암담한 시대상황을 견디지 못해 1973년 최초의 유신반대 집회인 서울대 문리대 대모에 참가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됐다.

정 후보가 가장 고달팠다고 회고하는 시기다. 군 제대후 복학시절이다. 정 후보는 서울 변두리에서 아동복을 만들어 날�试하던 어머니를 돋기 위해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옷장을 했다. 정 후보는 “어머니와 밤새 바지와 치마를 만들고 새벽이면 팔려 나갔다. 눈물에 젖은 밥을 먹었다”고 토로하고 한다.

◇**기자에서 정치인으로** = 1978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그는 1996

년까지 18년간 기자생활을 지내며 겪

동의 현대사를 현장에서 체험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내로 걸

어 들어가 빛발치는 총성을 들으며 도청 앞에서 취재를 감행하기도 했다.

1996년 4월 MBC 9시뉴스 간판행

커 시절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의 권유로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

정치계에 입문한 정 후보는 전주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정동영 후보가 지난 2005년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 근로자와 얘기하고 있다.

(정동영 캠프 제공)

전국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정치인생의 첫걸음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정풍운동과 2002년 ‘경선 지킴이’** = 2000년 12월 권리당 당시 민주당 고문의 2선 퇴진과 당 해신론을 골자로 하는 정풍운동은 정 후보가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하는 도약대로 작용했다.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를 처음 제

안하고 제도를 완성한 주역도 정 후보였다. 2개월 가까운 민주당 경선에서 대다수 후보가 중도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 후보는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지켜주는 의리를 보여줬다.

47석의 초미니 여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이 탄핵정국과 17대 총선을 거쳐 과반 넘는 152석의 거여(巨

與)로 발돋움하면서 정 후보는 명실 상부한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던 정 후보는 2004년 6월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며 ‘대권 수업’을 시작한다.

◇**지방선거 참패와 탈당, 대권 재도전 = ‘라이벌’ 김근태(金槿泰)의 원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 끝에 당의 장으로 ‘김법’ 한 정 후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배배를 맞았다.**

지난 7월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

는 제3기 ‘통합정부’를 향한 길고도

험한 여정을 시작했고 두달여만에 1차 고비인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반응과 전략

“호남표 또 뭉칠라”

한나라당은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확정되자 정 후보에게 축하인사를 보내면서도 ‘조직 동원력의 승리’, ‘배신의 성공’으로 규정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공격의 포문 열어 =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당의 대선 후보에 정 후보가 된 데 대해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저조한 투표율에 조직 동원력이 앞선 정 후보가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정 후보 측을 자극했다.**

나 대변인은 또 정 후보를 ‘배신의 정치인’으로 규정, 포문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끌어준 권노갑씨를 김대중 전 대통령 면전에서 비난하면서 정치적 도발을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친정인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일

등 공신이 됐으며, 참여정부의 국정 실책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맨 먼저 노대통령을 비난하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며 “배신에 배신을 거듭한 배신의 정치인 정동영 후보가 배신에 성공했다”고 비꼬았다.

◇**지방선거 참패와 탈당, 대권 재도전 = ‘라이벌’ 김근태(金槿泰)의 원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 끝에 당의 장으로 ‘김법’ 한 정 후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배배를 맞았다.**

지난 7월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는 제3기 ‘통합정부’를 향한 길고도 험한 여정을 시작했고 두달여만에 1차 고비인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예상된다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다.

나 대변인은 이날 “정 후보는 ▲노무현정권 탄생의 주역이었으며 ▲열린우리당 당의장 2차례와 통일부장관까지 지낸 이 정권의 황태자로서 국정 실패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졌다”며 “이번 대선은 결국 국정 실패 세력의 ‘정권 연장’이나 국가발전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남표심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남의 표를 어느 정도 얻지 않고서는 대선에 승리해도 반쪽짜리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시도당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후보가 됐는데 그가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엔 호남에서도 득표를 해야 하고 영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고 당선돼 사회통합되는 그런 역사적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에서의 득표 극대화를 시지한 것으로 풀이되자 정 후보는 ‘호남 후보’로 규정, 대결 구도를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 승리 이끈 정동영 캠프 사람들

‘좌장’ 이용희…‘싱크탱크’ 박명광

맡아 이강래 문학진 의원과 외부에

서 영입된 윤홍렬 전 스포츠처장을 사장, 조성준 전 노사정위원장 등을과 함께 ‘5인 공동선대본부장 체제’를 꾸려왔다.

이강래 의원은 97년 대선 당시 김 대중 후보 특보, 2002년 노무현 후보 기획특보를 맡았던 선거기획동

답게 경선과정에서 전략 수립에 공

을 세웠다. 김근태계로 분류됐던 문

학진 의원은 캠프의 외연에 기여했

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옹래 의원도 공동대변인인 김 현미 의원과 협동을 맞춰가며 상호 비방이 난무했던 살벌한 격전의 최 전방에서 저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정책총괄위원장인 양형일 의원은 본선에 대비, 분

야별 정책 점검을 해왔다.

◇**외부 영입 케이스 = 김대중 (DJ) 전 대통령의 사돈이기도 한 윤홍렬 전략기획 본부장은 지난 8**

월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캠프측이 “등교동계의 대어를 낚았다”며 기

대를 모은 인사이다.

97년 대선 DJ 외자 지원그룹이었던 ‘밝은 세상’ 팀을 이끈 선거 및 여론조사 전문가로, 8월 캠프 합류 후에는 개성공단을 만든 추진력을 충조한 ‘개성 동양’을 브랜드화하는 데 기여했다.

장성 백양사 주지인 지선 스님은 정 후보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아끼

지 않은 ‘자문역’으로 꼽힌다. 캠프 내 상임고문이란 ‘명예직’을 맡기도 했다.

◇**지지조직과 정책·참모그룹 = 노사보 핵심 출신으로 정 후보의 주요 지지조직인 정통들과 국민참여 운동본부(국본)을 이끌어온 이상호 국본 집행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는 공신이다.**

정통들과 국본, 평화경제포럼, 그리고 전주고 등문화단위로 구성된 정동영 후보는 정 후보의 승리로 기쁨을 이끌어내는 인프라가 됐다.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난 386 출신 송갑석 청년위원장은 모바일 부문 등을 맡아 젊은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장성 백양사 주지인 지선 스님은 정 후보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아끼

/연합뉴스

“겨울바다서 고래 잡는다”

(12월 대선)

〈대권〉

이명박, 선대위 회의서 결연한 의지 보여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5일 여의도 당시에서 가진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우리가 어차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외부에서 영입된 공동선대위원장과 부위원장, 선대위 주요 간부 등 4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후보의 회의에서는 특히 수도권 30, 40대를 집중 공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 7대 대선전략이 공개됐다. 대선준비팀(팀장 정두언 의원)이 이 후보에게 비공개 보고한 대선전략의 모토는 ‘겨울바다에서 고래를 잡는다’. 봄, 가을의 재보궐선거에는 거의 매번 압승을 거두면서 정작 겨울 대선에서는 2

연패를 당한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라고 한다.

밝은 표정의 이 후보는 선대위 첫 일성으로 “금년 선거는 정말 돈을 법적으로 한계로 넘어서는 듯한 선거”이라며 ‘클린 선거’를 강조했다. 그는 또 외부영입 공동선대위원장들에게 일일이 참석하고 특별한 정책개발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회의에서는 특히 수도권 30, 40대를 집중 공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 7대 대선전략이 공개됐다. 대선준비팀(팀장 정두언 의원)이 이 후보에게 비공개 보고한 대선전략의 모토는 ‘겨울바다에서 고래를 잡는다’. 봄, 가을의 재보궐선거에는 거의 매번 압승을 거두면서 정작 겨울 대선에서는 2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일보 광고점수안내

공인증개사전문!

전국합격률 1위!

개인·사업체·법인 등

개인·사업체·법인 등

개인·사업체·법인 등

개인·사업체·법인 등

</